

지역 매아리

김정기 부안군의원

나누미근농장학금 300만원 기탁

김정기 부안군의회는 12일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정기 의원은 "나눔을 함께 한다는 기쁨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보람찬 일이다"며 "지역의 학생들이 큰 꿈을 펼쳐 우리 부안의 큰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인재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고마운 정성에 감사드리며,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지역인재육성 및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은 2017년 형 김정빈씨와 함께 아버지 고 김규성씨를 기리려고 아버지의 호를 딴 성원장학금 천만 원을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기탁했고 매월 CMS 후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안군의회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주민소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행복한 정읍 만들기 '총력'

경로당 방문 · 정례회 등 어르신 챙기기 '분주'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은 경로당 어르신을 만나는 날입니다." 정읍시가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어르신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매월 2회씩 경로당 방문을 정례화해 어르신들의 인사를 챙기고 각종 불편사항과 불만 등을 수렴,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에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시책이다.

경로당 방문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김인태 부시장, 국소장, 파소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이들 간부공무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식사 여부 등 일상생활과 관련 전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필요에 따라 대화에 기반한 정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첫 일정이 지난 12일 실시됐다. 이날 간부공무원들은 신대인 지역 43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 시설



12일 정읍시 간부공무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시설 등을 살폈다.

등을 살피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현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 냉방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며, 추석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시는 다음 일정은 북면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정읍의 65세 이상 노인 인

구는 6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3%인 2만8,688명에 달한다"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 무료급식과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정읍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고, 경로당 방문 정례화 역시 이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경제 살리기에 '활활'

재경고창군민회, 2억원 상당 고창 멜론 구입

재경고창군민회(회장 김광중)의 고향사랑이 뜨겁다.

12일 고창군 공음면 황토멜론산별장에서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김만길 전라북도 의원, 김광중 재경군민회장과 회원, 김성욱 황토멜론연구회 회장 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황토멜론연구회 회원들이 생산한 멜론 첫 출하 기념행사가 열렸다.

고창 황토멜론연구회는 31농가 27ha의 멜론을 재배 중이며 매월 회의와 교육을 통해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농가들의 노력과 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지원 등으로 고창 멜론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매년 상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전 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되어 청정 고창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재경군민회는 고창지역 상품을 애용에 적극 나서 2억원 상당의 멜론 740박스를 구입하여 멜론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탤다.

재경고창군민회는 김광중 회장을 주축으로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에 거주하는 재외군민들을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매년 재외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고창인 큰 잔치'를 비롯해서 고향농수산물 구입과 고창인이 운영하는 업체 애용 및 홍보,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고향상품애용하기 등 고창사랑을 실천하는 '애향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향멜론 구입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농특산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하자는 재외군민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쌈고을아시장' 내일 열려

정읍의 대표 전통시장인 쌈고을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쌈고을시장, (야)생 아시장'이 오는 14일 열린다.

쌈고을시장 아시장은 시장 내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 문화상품 등을 준비하여 손님을 맞이한다. 개막 축하 공연으로 가수 조연비의 진행으로 탤런트 겸 가수인 임재무를 포함하여 지역가수 4명과 공연동아리단체 10팀이 출연하여 가요, 국악, 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쌈고을시장 아시장은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에서 벗어나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신선하고 획기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의 아이টে으로 가득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아울러, 쌈고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웰빙먹거리 특화거리 조성'과 '100년 먹거리 개발' 프로젝트를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여 지역 명품시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아시장은 10월 18일 와글와글시장가오제와 10월 20일~27일 문화관광형시장 웰빙푸드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열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전차단만이 최선"

정읍시, 양돈농가·축산단체 대상 전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동유럽,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3일 중국 랴오닝성(省)에서도 발생하여 이후 13차까지 추가 발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여행객이 소지한 돈육가공품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국내 확산의 우려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이다. 아직까지 국내에

서 발생한 적이 없으나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12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양돈농가와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ASF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담당관제를 시행하여 주1회 전화 및 방문점검을 하고 있다. 담당관은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열처리(80

℃, 30분) 이행여부 및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발생지역 해외여행객으로 통보된 축산관계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수칙에 대한 리플릿(leaflet)을 배포하고 방역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시 가축방역 관계자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사전차단만이 최선이다"며 "양돈농가는 중국, 러시아 등 발생지역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축사 내외 및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여 의심축이 발견되는 즉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406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영예

포상금·특별교부세 확보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

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8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55개 공공기관 등 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난관리 실적을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재난

관리 핵심 역량과 주요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고창군은 재난 위기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개선한 것은 물론 운영 관리 노력과 함께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포상금(1,500만원)과 특별교부세(3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12일 부안농협과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관내 어르신 80여명과 용인 에버랜드로 효나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부안농협, 어르신 위한 효나들이 다녀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고향주부모임(회장 김미자) 회원들이 12일에 관내 어르신 80여 명과 효나들이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다.

농촌은 농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홀로 계시는 시간이 많고 경로당이 사망방 역할을 하며 주로 경로당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등 농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또 각종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지원 많이하고 있으나 그러나 시간이 날때마다 마을에서는 आयु회를 많이 다녀오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안농협과 고향주부모임회원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효나들이 여행을 계획, 조금 몸이 불편하지만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이끌어주었으며 용인 에버랜드에서 나들이를 하면서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어드렸다.

고향주부모임 김미자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들은 비록 힘은 들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같이 온 정성을 다하여 돌봐드렸다. 한편 김원철부안농협조합장은 "이날 고생하신 고향주부모임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우리 농협의 기초가 되신 분들이다"며 "앞으로도 모태가 되신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훈훈한 마음이 전달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